

# 한일 구어체 성서의 대우표현 비교\*

안 증 환\*\*

(e-mail: ajw7340@hnu.kr)

---

## 目次

---

1. 서론
  2. 청자대우표현
  3. 화제인물 대우표현
    - 3.1 주체존경표현
    - 3.2 객체존경표현
  4. 결론
- 
- 

## 1. 서론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구어체 성서를 대상으로 두 언어의 구어에 나타나는 대우표현을 비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앞서 필자(2013)는 한일 문어체 성서의 대우표현을 비교한 바 있기 때문에,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 논문은 필자(2013)의 후속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비교대상으로 채택한 주된 성서는 한국어의 “새번역(2001)”과 일본어의 『新共同訳(1987)』이나, 필요한 경우 한국어의 “표준새번역(1993)”과 “공동번역(1997)”, 일본어의 『口語訳(1955)』과 『フランシスコ会訳(2013)』<sup>1)</sup>을 참고로 한다. 본고에서는 대우표현을 청자대우표현과 화제인물 대우표현으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주체존경표현과 객체존경표현으로 구분한다.

---

\* 본 연구는 2013년도 한남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함.

\*\* 한남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1) 프란시스코회 성서연구소에서 간행한 것으로 원명은 『原文校訂による口語訳 聖書』이나, 본고에서는 『フランシスコ会訳』으로 표기한다.

## 2. 청자대우표현

청자대우표현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으나, 성서에서는 두 언어 모두 격식체뿐으로 비격식체는 나오지 않는다<sup>2)</sup>.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격식체는 존대와 비존대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격식체 존대의 경우 한국어는 아주높임(합쇼체)과 예사높임(하오체)이 있고, 일본어 격식체는 정중체라는 것으로 「です(ます)」체를 가리킨다. 격식체 비존대에서 한국어는 예사낮춤(하게체)과 아주낮춤(해라체)으로 분화되지만, 성서에는 아주낮춤만 나올 뿐 예사낮춤은 없다. 한편 일본어 비격식체는 보통체라 불리는 「だ(する)」가 하나 있다. 이상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한국어성서와 일본어성서의 격식체>

	존대(정중체)		비존대(보통체)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
한국어	습니다 브니다 등	오(소) 구려 등	∅	(는)다 (는)구나
일본어	です(ます)		だ(する)	

따라서 격식체에서는 두 언어의 청자대우표현이 일정한 대응관계를 보여준다. 즉 한국어에서 아주높임과 예사높임을 나타내는 것들은 일본어에서 「です(ます)」로 실현되고, 격식체 비존대의 아주낮춤을 나타내는 형태는 일본어에서 「だ(する)」로 실현된다. 다음의 예문 (1)~(6)이 이상의 기술을 입증해 준다.

- (1)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8:6)  
「主よ、わたしの僕が中風で家に寝込んで、ひどく苦しんでいます」
- (2)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헬입니다." (마2:5)  
彼らは言った。「ユダヤのベツレヘムです。」
- (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마26:64)  
イエスは言われた。「それは、あなたが言ったことです。」
- (4)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나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눅14:20)

2) 비격식체는 한국어는 어말어미, 일본어는 종조사 등으로 실현된다. 즉 서술법의 경우, 한국어 비격식체에서 존대는 '어요' '지요' '군요' '르걸요' 등으로 실현되고, 비존대는 '어' '지' '군' 등으로 실현된다. 일본어 비격식체의 경우는 존대 비존대 불문하고 「ね」 「よ」 「わ」 「ぞ」 등의 다양한 종조사 등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また別の人は、『妻を迎えたばかりなので、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と言った。

(5)“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마17:12)

「言うておくが、エリヤは既に来たのだ。」

(6)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마16:7)

弟子たちは、「これは、パンを持って来なかったからだ」と論じ合っていた。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어에서 예사높임을 나타내는 형태가 일본어에서는 비존대형태로 실현되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사실이다.

(7)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마26:72)

そこで、ペトロは再び、「そんな人は知らない」と誓って打ち消した。

(8)“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마26:65~66)

「諸君は今、冒瀆の言葉を聞いた。どう思うか。」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결국 한국어에서 예사높임을 나타내는 (3)(4)와 (7)(8)의 차이점이 규명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3)(4)를 보면, (3)의 발화장면은 예수가 자신을 재판하는 재판관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다. 성서에서 예수는 절대높임의 대상이지만, 재판받는 자리에서 피의자인 예수가 재판관의 위상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을 보내 지인을 초청하는 장면이다. 초청받은 사람이 초청자를 의식해서 예사높임이라는 존대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장면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청자대우도는 일치한다.

한편(7)(8)의 발화장면을 보면, (7)은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와의 관계를 묻는 사람에게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는 장면이다. 이때 한국어에서의 예사높임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일본어는 여기에서 비존대인 보통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8)의 경우는 대제사장이 예수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동석한 장로들에게 의견을 묻는 장면이다. 즉 화자는 권위의 상징인 대제사장이고, 청자는 장로들이지만 지위로는 대제사장에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도 한국어는 예사높임이라는 존대체를 선택하고 있고 일본어는 비존대인 보통체를 선택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자에 대한 화자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현대 한국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비존대체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비존대체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다른 번역본을 보더라도 두 언어의 구어

체 성서는 이 점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칭자대우표현에서 찾아지는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일본어는 한국어와 달리 동일한 상황에서 존대체와 비존대체가 혼재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마태복음 3장 15절과 요한복음 18장 37절을 인용한 것이다.

(9)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마3:15)

しかし、イエスはお答えになった。「今は、止めないでほしい。正しいことをすべて行うのは、我々にふさわしいことです。」

(1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요18:37)

イエスはお答えになった。「わたしが王だとは、あなたが言っていることです。わたしは真理について証しをするために生まれ、そのためにこの世に来た。真理に属する人は皆、わたしの声を聞く。」

(9)는 예수가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한 말이고, (10)은 예수가 자신을 재판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한 말이다. 다만 일본어에 보이는 이러한 혼재 현상이 『口語訳』 『フランシスコ会訳』에는 나타나지 않지만<sup>3)</sup>, 『新共同訳』에서는 고린도전서 7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13절 등 다수 모습을 보임으로서 칭자대우표현에 나타나는 일본어의 특징으로 분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牧野成一(1996)는 일본어 보통체와 경어체를 각각 내부지향형(ウチ型)과 외부지향형(ソト型)으로 구분하면서, 경어체로 진행되는 담화 중이라도 개인적인 확신을 말하는 등 담화 속에서 칭자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을 때는 보통체로의 전환이 일본어에서는 자주 일어난다고 했다<sup>4)</sup>. 한국어에서는 흔치 않은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편(詩編)의 기도문에서 특히 자주 발견된다. 기도문도 화자와 칭자가 설정되는 바, 성서의 기도문에서 칭자는 절대자인 하나님이다. 때문에 다음 예문 (11)(12)에서 보듯이 당연히 정중체가 채택되어야 한다.

3) 다음은 일본어 『口語訳』에서 인용된 것이다. 모두가 보통체로 표기되어 있고, 이 점 또한 한국어와 다르다.

しかし、イエスは答えて言われた、「今は受けさせてもらいたい。このように、すべての正しいことを成就するのは、われわれにふさわしいことである」。(마3:15)

イエスは答えられた、「あなたの言うとおり、わたしは王である。わたしは真理についてあかしをするために生れ、また、そのためにこの世にきたのである。だれでも真理につく者は、わたしの声に耳を傾ける」(요18:37)

4) 牧野成一(1996), pp.105~107

- (11)主よ、わたしはあなたを呼びます。主に憐れみを乞います。(詩編30:9)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시30:8)
- (12)神よ、我らはこの耳で聞いています。(詩編44:2)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시44:1)

그러나 일본어 시편 속의 기도문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13)主よ、国々の中で／わたしはあなたに感謝をささげ／御名をほめ歌う。(詩編18:50)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시18:49)
- (14)主よ、あなたの慈しみは天に／あなたの眞実は大空に満ちている。(詩編36:6)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시36:5)
- (15)神よ、あなたは我らを突き放されたのか。神よ、あなたは我らと共に出陣してくだらないのか。(詩編60:12)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시60:10)

(13)~(15)의 기도문도 (11)(12)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상대를 ‘주님’ 혹은 ‘하나님’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기도문은 정중체가 아닌 보통체로 끝을 맺고 있다. 왜 그럴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님’ 혹은 ‘하나님’이 (11)(12)에서는 담화의 상대가 되고 있지만, (13)~(15)에서는 담화의 상대가 아니라 단지 일방적인 호소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11)(12)는 ‘주님(하나님)’의 구체적인 반응 혹은 응답을 고대한다. 하지만 (13)~(15)는 그러한 구체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단지 ‘주님(하나님)’에 대한 자기고백 혹은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에 대한 탄원 등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바꿔 말해서 (13)~(15)의 기도문에 등장하는 청자는 담화상대로서의 청자가 아니라 고백이나 탄원의 대상으로 내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11)(12)와 구별된다. 즉 일종의 독백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 3. 화제인물 대우표현

화제인물 대우표현은 존경대상이 주체인가 객체인가에 따라 주체존경표현과 객체존경표현으로 구분된다. 주체존경은 주체 인물을 높이는 표현이고, 객체존경표현은 대격이나 여격 등으로 표출되는 객체로서의 인물 또는 그 인물과 관

계된 사람이나 사물에까지 확대되는 존경표현이다. 주체존경표현이나 객체존경표현 모두 두 언어는 각각 어휘적인 것이나 문법적 방법에 의해 실현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문법적인 표현방식을 중심으로 비교하기로 한다<sup>5)</sup>.

### 3.1 주체존경표현

주체존경표현을 나타내는 두 언어의 대표적인 문법형태로 한국어는 선어말어미 ‘-시-’를, 일본어는 조동사 「(ら)れる」를 들 수 있다. 한국어 ‘-시-’가 주체존경형태의 대표성을 띠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왜냐하면 명사, 형용사 및 동사를 포함한 모든 술어에서 주체존경표현은 선어말어미 ‘-시-’에 의해서만 실현되기 때문이다<sup>6)</sup>. 그러나 일본어의 경우는 다르다. 이는 일본어의 경우 술어의 유형에 따라 복수의 존경형태를 갖는 경우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ら)れる」(이하, 「られる」)를 일본어 주체존경표현의 대표로 본 것은 이 「られる」가 한국어 ‘-시-’처럼 명사, 형용사 그리고 동사 술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6)“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수2:11)

「あなたたちの神、主こそ、上は天、下は地に至るまで神であられるからです。」

(17)그 분은 신실하십니다.(딤후2:13)

キリストは常に真実であられる。

(18)“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막1:7)

「わたしよりも優れた方が、後から来られる。」

예문 (16)(17)(18)은 각각 명사술어, 형용사술어 및 동사술어로 술어의 유형을 달리하나, 이들 각각의 밑줄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문에서는 ‘-시-’가, 일본어문에서는 「られる」가 동일하게 발견된다. 다만 일본어 형용사는 (17)의 「真実な」같은 「な」형용사 외에 「大きい」같은 「い」형용사도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일본어 구어체 성서에서 「い」형용사에 대한 존경

5) 일본어 구어체성서의 어휘적 존경어에는 구어가 아닌 아어(雅語)라는 문어가 남아있어 표현의 품위를 높여주고 있다. 다음 예문의 「仰せ」나 「います」가 구어 「御言葉」와 「いらっしゃる」에 대한 雅語의 예이다.

①僕が、「御主人様、仰せのとおりにいたしました、まだ席があります」と言うと、(ルカ14:22)

②主は大水の上にあります。(詩編29:3)

6) 한국어의 주체존경형태 ‘-시-’는 ‘주무시다(자다)’ ‘잠수시다(먹다)’ ‘드시다(들다)’ 등 어휘적 존경어에서도 공통적으로 개입한다.

형태는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sup>7)</sup>. 따라서 본고는 일본어 구어체 성서를 통해 「られる」를 일본어 주체존경의 대표형으로 보았다.

이제 각 언어의 특징적인 것을 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어의 주체존경표현은 술어의 '-시-'라는 형태 외에 주체 명사에 '께서'라는 조사가 출현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셨다.(마2:1)

(20)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마3:14)

예문 (19)(20)에서 보듯이 조사 '께서'는 존경의 대상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술어의 '-시-'와 호응함으로써 주체존경표현을 실현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어에 없는 것으로 한국어의 특징임에는 틀림없으나, 주체존경표현에서 조사 '께서'가 '-시-'만큼 절대적이지는 못하다.

(21)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마22:34)

(22)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마8:19)

예문(21)의 '예수'와 (22)의 '선생'은 술어 부분의 '-시-'를 통해서도 존경대상임을 알 수 있음에도, 존칭을 나타내는 조사 '께서' 대신 일반의 주격조사 '가/이'가 위치하고 있다. 결국 한국어의 주체존경표현은 '-시-'라는 선어말어미에 의해 실현되고, 주체명사에 붙는 조사 '께서'는 수의적인 것으로 존경표현을 명확히 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일본어를 보기로 한다. 일본어 주체존경표현은 조동사 「られる」를 대표형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문법형식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동사 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동사술어의 존경표현은 「られる」 외에 「お~になる」형과 명사형으로의 변형에 의한 경우가 있다.

(23) イエスが、「名は何というのか」とお尋ねになると、(막5:9)

(24) 「ところで、どうお思いでしょうか、お教えてください。」(마22:17)

7) 다음의 예문은 일본어 성서가 「い」형용사의 존경표현형태를 특별히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①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요1서4:4)

あなたかたの内におられる方は、世にいる者よりも強いからです。

②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앗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도다. (역하32:7)

我々と共においでになる方は、敵と共にいる者より力強い。

그리고 이것들은 「られる」 형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사실 『口語訳』에서는 (23)(24)의 존경표현이 모두 「られる」로 실현되고 있다.

(23') また彼に、「なんという名前か」と尋ねられると、

(24) 「それで、あなたはどう思われますか。教えてください。」

이때 언어학적 관점에서 의문이 되는 것은 존경표현 「られる」와 「お~になる」는 항상 교체가 가능할까 하는 점과,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언어의 경제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점이다. 田川建三(1997. p626)는 『口語訳』의 번역 문제점 중 하나로 경어표현을 원칙상 「られる」 형으로 통일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邢鎮義(2011. p158)는 일본의 『口語訳』이 존경표현을 「られる」로 통일시킨 것은 1952년 일본 문부성의 경어간소화 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로는 『口語訳』에도 「お~になる」에 의한 경어표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新共同訳』『フランシスコ会訳』에서도 일관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필자가 제시한 앞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역본에서 공통적으로 「お~になる」형만으로 존경표현을 실현시키는 동사들의 특징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25)(26)은 마태복음 17장 18절과 마태복음 25장 20절을 일본어 성경 세계의 역본에서 인용한 것이다.

(25)a. イエスがおしかりになると、悪霊はその子から出て行った。(口)

b. そして、イエスがお叱りになると、悪霊は出て行き、(新)

c. イエスがお叱りになると、悪霊はその子から出ていった。(7)

(26)a. 『ご主人様、あなたはわたしに五タラントをお預けになりましたが、…』(口)

b. 『御主人様、五タラントお預けになりましたが、…』(新)

c. 『ご主人さま、わたしに五タラントをお預けになりましたが、…』(7)

(25)(26)은 결국 일본어 주체존경표현에서 「お~になる」형이 「られる」형과 별도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언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을 알기 위해 필자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에서 「お~になる」만으로 존경표현을 실현시키고 있는 동사를 조사해 보았다. 「られる」나 「お~になる」에 의해 존경표현을 실현시키고 있는 동사 38개가 추출되었고<sup>8)</sup>, 그 중 다음 (27)

8) 預ける、与える、受ける、生まれる、入れる、教える、帰す、返す、帰る、聞く、暮す、答える、授ける、叱る、示す、育つ、尋ねる、立つ、遣わす、着く、造る、つける、出かける、とがめる、泊まる、願う、登る、乗る、



의 12개 동사가 세 개의 역본에서 공통적으로 「お~になる」 형만을 취하고 있었다.

- (27)生まれる、授ける、叱る、乗る、預ける、見捨てる、赦す、育つ、帰す、見せる、与える、示す

이것들을 다시 일본어성경 전체로 확대 조사한 결과, 「生まれる、叱る、預ける、見捨てる、赦す、育つ」 6개 동사로 축소되었다<sup>9)</sup>. 이들 동사 중 「叱る、預ける、見捨てる、赦す」를 보면, 왜 이들 동사가 「られる」형 존경표현을 피하는 알 수 있다. 즉 「叱られる、預けられる、見捨てられる、赦される」등이 개입된 문은, 주체가 설령 존경대상이라 하더라도 ‘혼나다, 말다, 버려지다, 용서받다’ 등 수동의미로 미리 예측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들 동사의 존경표현에 「お~になる」형이 채택되는 것은 「られる」형을 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동의미로의 사전예측을 예방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로, 「られる」가 갖는 다의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口語訳』이 「られる」로 주체존경을 실현시켰으나 『新共同訳』과 『フランシスコ会訳』에서 「お~になる」형으로 교체된 「渡す、命じる、尋ねる、遣わす」와 같은 동사들에 대해서도 교체배경 설명을 가능하게 해 준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의 「渡す」와 요5장 23절의 「遣わす」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 (28)天を仰いでそれを祝福し、パンをさいて弟子たちに渡された。(口)

天を仰いで賛美の祈りを唱え、パンを裂いて弟子たちにお渡しになった。

(新)

天を仰いで賛美をささげ、パンを裂いて、弟子たちにお渡しになった。(フ)

- (29)子を敬わない者は、子をつかわされた父をも敬わない。(口)

子を敬わない者は、子をお遣わしになった父をも敬わない。(新)

子を敬わない者は、子をお遣わしになった父をも敬わない。(フ)

즉 경어단순화 정책 등으로 구어역에서 「られる」로 주체존경을 나타냈지만, 그 「られる」형이 수동의 의미로 오인될 수 있는 몇몇 동사에 대해서는 일관

入る、話す、蒔く、見捨てる、見せる、命じる、赦す、呼ぶ、忘れる、渡す 등  
 9) 나머지 동사들은 『新共同訳』에서 「られる」형 존경표현이 발견되었으나, 존경어 「見せられる」는 『口語訳』에서만 추출되었다.  
 「あなたは何ゆえ、わたしによこしまを見せ、何ゆえ、わたしに災を見せられるのか。」(ハバク書1:3)

되게 「お~になる」 형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으로 「お~になる」 형만을 취한 모든 동사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령 일본어 성서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お生まになる」 나 「お育ちになる」 같은 경우는 앞의 설명으로 궁색하다<sup>10)</sup>. 그러나 일본어 존경형태에 「られる」 와 「お~になる」 라는 전혀 다른 복수의 존경형태가 존재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설명이 가능해졌다고 본다.

또 하나 한국어와의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본어의 독특한 주체존경표현이 (24)에서 확인한 것으로, 동사의 명사형에 접두사를 수반시킨 형태이다<sup>11)</sup>. 다음 예문 (30)(31)은 각각 『口語訳』 과 『新共同訳』 에서 추출한 마가복음 10장 49절과 요한복음 4장 11절이다.

- (30)a. イエスは立ちどまって、「彼を呼べ」と命じられた。そこで、人々はその盲人を呼んで言った、「喜べ、立て、おまえを呼んでおられる」。(口)  
 b. イエスは立ち止まって、「あの男を呼んで来なさい」と言われた。人々は盲人を呼んで言った、「安心しなさい。立ちなさい。お呼びだ。」(新)
- (31)a. 女はイエスに言った、「主よ、あなたは、くむ物をお持ちにならず、その上、井戸は深いのです。その生ける水を、どこから手に入れるのですか。」(口)  
 b. 女は言った。「主よ、あなたはくむ物をお持ちでないし、井戸は深いのです。どこからその生きた水を手にお入れになるのですか。」(新)

(30)(31)은 각각 『口語訳』 에서 「られる」 와 「お~になる」 에 의한 존경표현이 『新共同訳』 에서는 접두사 「お」 를 수반한 명사형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안증환(2004.p429)은 한국어와의 상대적 관점에서 일본어를 명사 중심구조의 언어로 유형화시키고 있는데, 그 배경 중 하나로 (30)(31)처럼 동사구문이 명사구문으로 변형되는 데에 두고 있다. 이러한 변형은 표현의 품위를 높여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의뢰문인

10) 마태복음 1장16절과 누가복음 4장16절을 인용한다.

- ①a. このマリアからメシアといわれるイエスがお生まれになった。(口)  
 b. このマリアからメシアと呼ばれるイエスがお生まれになった。(新)  
 c. キリストと呼ばれるイエスは、このマリアからお生まれになった。(7)
- ②a. それからお育ちになったナザレに行き、安息日にいつものように会堂に入り、(口)  
 b. イエスはお育ちになったナザレに来て、いつものとおり安息日に会堂に入り、(新)  
 c. さて、イエスはお育ちになったナザレに行き、安息日に、いつものとおり会堂にお入りになった。(7)

11) 동사의 명사형 중 「お願いです」는 존경대상이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 이른바 객체존경표현을 나타낸다.

『父よ、ではお願いです。』(눅16:27)

「ください」 구문이다.

- (32)a. ピリポはイエスに言った、「主よ、わたしたちに父を示してください。」 (口)
- b. フィリポが「主よ、わたしたちに御父をお示してください。…」と言うと、(新)

즉 (32a)의 「示して」는 동사의 활용형이지만, (32b)의 「お示し」는 동사의 활용형이 아니라 동사 「示す」의 명사형에 접두어 「お」가 붙은 것이다. 이 둘은 표현의 품위를 제외한 존경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명사변형에 의한 이러한 존경표현은 한국어 구문에는 없는 것으로 일본에서도 논문외의 일반 개론서에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지 않지만 확실히 존경표현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사변형에 의한 이러한 존경표현은 문말만이 아니라, (32)(33)에서 보듯이 문중에서도 등장한다.

- (33) 「主よ、お望みなら、天から火を降らせて、彼らを焼き滅ばせましょうか」(눅9:54)
- (34) 「そのとき、あなたがたは『御一緒に食べたり飲んだりしましたし、また、わたしたちの広場でお教えを受けたのです』と言いだすだろう。」(눅13:26)

(33)의 「お望み」나 (34)의 「お教え」가 주체존경표현이라는 것을 예문(35)를 통해 살피기로 한다. 예문(35)는 마태복음 20장 30절이다.

- (35)a. すると、ふたりの盲人が道ばたにすわっていたが、イエスがとおって行かれると聞いて、叫んで言った、「主よ、ダビデの子よ、わたしたちをあわれんで下さい」。(口)
- b. そのとき、二人の盲人が道端に座っていたが、イエスがお通りと聞いて、「主よ、ダビデの子よ、わたしたちを憐れんでください」と叫んだ。(新)
- c. 道端に座っていた二人の盲人が、イエスがお通りになると聞いて、「主よ、ダビデの子よ、わたしたちを憐れんでください」と叫んだ。(7)

문제는 (35b)의 「お通り」이다. 이 부분이 (35a)와 (35c)에서는 각각 「とおって行かれる」와 「お通りになる」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데에서 (35b)의 「お通り」역시 주체존경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田川建三(1997,p631)가 지적한 대로 (35a)같은 존경표현은 일본어로서 어색할 수 있으나 불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33)의 「お望みなら」는 ‘당신이 원하신다면’으로, (34)의 「お教え」는 ‘당신이 가르쳐주신 것을’의 의미를 지닌 존경표현이 됨을 알 수 있다.

### 3.2 객체존경표현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객체존경표현은 주체존경표현만큼 규칙적이지 못하다. 즉 주체존경에서는 조건만 갖춰지면 두 언어 모두 확인이 가능했으나, 객체존경은 그렇지 않다. 우선 현대 한국어에서 객체존경표현은 술어에 규칙적으로 개입되는 문법형태가 없다. 다만, ‘여쭙다, 뵙다’ 등 일부 동사가 본용언이나 보조용언으로 기능하고, 조사 ‘께’가 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도울 뿐이다. 반면에 일본어는 「お~する」라는 문법형식이 있어서 한국어에 비해 안정적으로 보이나, 이것 역시 조건이 갖춰졌다고 반드시 노정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두 언어의 성서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노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 먼저 예문을 통해 두 언어의 관계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36)すると、百人隊長は答えた。「主よ、わたしはあなたを自分の屋根の下にお迎えできるよう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들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마8:8)

(37)そして、子ろばをイエスのところに引いて来て、その上に自分の服をかけ、イエスをお乗せした。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엮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눅19:35)

(38)그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すると、天使が天から現れて、イエスを力づけた。(눅22:43)

(36)의 경우 일본어가 객체존경표현인 「お~する」의 가능형을 사용했고 한국어는 ‘모시다’라는 겸양동사를 채택함으로써 표현방식은 다르나, 존경대상인 객체 「あなた」와 ‘주님’에 대해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존경표현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37)(38)은 그러한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37)에서 일본어는 「イエス」를 「お乗せする」라는 형식을 빌어 객체존경표현을 하고 있으나, 한국어 성서에서는 객체존경 대신에 주체존경 ‘올라타시다’를 ‘게 하다’라는 사동표현과 연결시키고 있다. 거꾸로 (38)에서는 한국어 쪽이 보조용언 ‘드리다’로 객체존경표현을 실현시키고 있으나 일본어에는 아무런 장치도 발견되지 못한다. 결국 객체존경표현은 한국어와 일본어 둘 사이에 상호검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결국 각각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두 언어의 객체존경표현 비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두 언어 각각에 나타나는 객체존경표현의 특징을 살피기로 한다. 먼저 현대한국어의 객체존경은 이미 언급한 대로 특정동사에 의해 실현된다.

(39)그들은 예수를 뵈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28:17)

(40)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마15:5)

(41)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행4:24)

(42)그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눅22:43)

예문 (39)~(42)의 한국어문에서는 모두 객체존경표현이 발견된다. (39)(40)은 각각 겸양동사 '뵈다'와 '드리다'에 의해, (41)(42)은 겸양동사 '아뢰다' '드리다'가 보조용언으로 작용하면서 존경표현을 실현시키고 있다. 현대한국어의 전형적인 객체존경표현방식이다. 이러한 동사로 이밖에 성서에서 발견되는 것으로는 '모시다(막15:46)' '여쭙다(행1:6)' '아뢰다(눅7:6)' '바치다(마22:17)' '받들다(행13:36)' 등이 있었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40)의 경우처럼 객체인 존경대상이 여격명사로 출현할 경우 조사를 '에게' 대신 자체에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께'로 대체가능하다. 예문 (43)(44)를 보기로 한다.

(43)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었다. (행1:6)

(44)그러던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열두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눅9:12)

즉 (43)의 '여쭙다'와 (44)의 '말씀드리다'는 객체존경을 실현시키는 술어로, 두 곳 모두 객체인 '예수'가 '께'라는 조사에 의해 노정되고 있다. 동일한 상황에서 객체존경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지만, 주체존경의 '께서'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조건은 되지 못한다. (45)(46)처럼 겸양동사만으로 객체존경을 실현시킬 수도 있고, 거꾸로 (47)(48)처럼 조사 '께'만으로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5)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눅15:18)

(46)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게 한다.  
(막7:12)

(47)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마13:10)

(48)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마9:14)

결국 현대한국어의 객체존경표현은 일부 겸양동사에 의해 실현되고, 존경대상이 여격명사로 나타날 경우에 한해 조사 ‘께’가 그 기능을 명확히 해 주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부터 일본어 객체존경표현을 다루는데, 앞서 말한 대로 현대일본어의 객체존경표현은 어휘에 의한 것 외에 예문 (36)(37)에서 본 대로 「お~する」라는 문법형식에 의해 실현된다. 예문(49)는 사도행전 21장 37절을 세 개의 일본어 구어체 성서에서 추출한 것으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お~する」형식으로 객체존경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 (49)a. パウロが兵營の中に連れて行かれようとした時、千卒長に、「ひと言あなたにお話してもよろしいですか」と尋ねると、(口)  
 b. パウロは兵營の中に連れて行かれそうになったとき、「ひと言お話ししてもよいでしょうか」と千人隊長に言った。(新)  
 c. パウロは兵營に連れ込まれようとした時、千人隊長に、「一言お話しし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と言うと、(フ)

이처럼 일본어 세 개의 역본에서 「お~する」형태가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것은 (49)외에도 마태복음 8장 8절(お迎えする)이나 누가복음 19장 35절(お乗せする) 등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조사해 본 바, 실제로는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역본에서 보이던 것이 다른 역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등 일정치 못한 것이 더 많았다. (50)(51)은 요한복음 4장 19절과 사도행전 20장 19절이다.

- (50)a. 「主よ、わたしはあなたを預言者と見ます」。(口)  
 b. 「主よ、あなたは予言者だとお見受けします。」(新)  
 (51)a. すなわち、自分を全く取るに足りない者と思ひ、涙を流しながら、また、ユダヤ人の数々の陰謀によってこの身にふりかかってきた試練に遭いながらも、主にお仕えしてきました。(新)  
 b. わたしは謙遜の限りを尽くし、涙を流し、ユダヤ人の企みによってわたしの身に降りかかった数々の試練のうちにあつて、主に仕えてきました。(フ)

(50)을 보면 『口語訳』에서 노정되지 않았던 존경표현이 『新共同訳』에서는 나타나 있고, (51)에서는 『新共同訳』의 존경표현이 『フランシスコ会訳』에서는 무표지로 끝나고 있다. 이러한 것은 「お~する」를 객체존경표현방식으로 갖고 있는 일본어에서도 객체존경표현은 주체존경표현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お~する」 형식의 출현에는 「お~になる」보다 더 많은 통사적 제한이 있음을 가리킨다. 즉 다음 예문 (52)처럼 존경대상인 객체가 담화의 직접상대일 경우라면 「お~する」 형식이 필수적이지만, (53)처럼 존경대상인 객체가 담화상대가 아니라 제3자일 경우는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예문 (52)(53)은 각각 『新共同訳』과 『フランシスコ会訳』의 사도행전 26장 3절과 22장 18절을 추출한 것이다.

- (52)a. 「どうか忍耐をもって、私の申すことを聞いてくださる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b. 「どうか忍耐をもって、私の申しあげることをお聞きくださる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53)a. 「さて、わたしはエルサレムに帰って来て、神殿で祈っていたとき、我を忘れた状態になり、主にお会いしたのです。」  
 b. 「さて、わたしはエルサレムに帰った後、神殿で祈っていた時に、脱魂状態になり、主を見ました。」

성서에서 (52)는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존경대상인 객체가 담화의 직접상대인 아그립바 왕이다. 이런 때는 반드시 객체존경표현을 어떤 형태로든 실현시킨다. 그러나 (53)은 다르다. 객체인 「主(주님)」는 성서에서 절대높임대상이지만 지금의 담화장면에서는 제3자이다. 따라서 이런 때는 (53a)와 (53b)에서 보듯이 객체존경표현은 수의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것은 마태복음 8장 8절과 사도행전 20장 19절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일본어에서 겸양동사에 의한 객체존경표현은 어떨까? 한국어의 경우 객체존경표현은 주로 겸양동사에 의해 실현되었던 점을 상기하면, 문법적 형식이 아닐지라도 두 언어를 비교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 겸양동사 중 객체존경을 표현하는 것으로 「申し上げる、いただく、差し上げる、伺う」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言う、もらう、上げる、行く(問う)」의 겸양동사로 객체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 (54) 「塵あくたにすぎないわたしですが、あえて、わが主に申し上げます。」 (창18:27)  
 (55) 「わたしの一族が立ち会っているところで、あなたに差し上げますから、早速、亡くなられた方を葬ってください。」 (창23:11)  
 (56) しかし、国民は彼を憎んでいたので、後から使者を送り、『我々はこの人を王にいた  
だきたくない』と言わせた。(눅19:14)

(54)~(56)에서 밑줄이 있는 겸양동사들은 각각 객체인 「主」「あなた」「この人」를 의식한 선택이다. 즉 객체를 의식한 자기낮춤이기 때문에, 이들은 객체

존경표현의 범주에 들어간다. 다만 일본어 성서에서 발견되는 겸양동사 중 「伺う」만은 단독으로 출현하지 않고 늘 「お伺いする」 형식을 취해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57) 「ですから、わたしの方からお伺いするのさえふさわしくないと思いました。」(눅7:7)

(58) 「そこで、使いの者を御主人様のもとに送って御報告し、御機嫌をお伺いいたします。」(창32:6)

(57)(58)에서는 존경대상인 객체가 문장에 구체적으로 노정되지 않고 생략되어 있다. 하지만 (57)에서는 전후 문맥을 통해 ‘당신을 찾아뵙는’ 등으로 생략된 객체 「あなた」를 복원시킴으로서 객체존경표현 배경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58)도 ‘당신의 안부를 여쭙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객체존경표현임을 알 수 있다.

#### 4. 결론

본 논문은 한일 양국의 구어체 성서에 나타난 대우표현을 비교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양국 모두 복수의 구어체 성서를 갖고 있으나 본고에서 주로 대조한 것은 한국어 “새번역”과 일본어 『新共同訳』이었고 기타 역본은 비교 등의 필요시에 한해 인용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대우표현은 청자대우표현과 화제인물 대우표현으로 지면상 술어와 관계된 부분으로 제한되었음을 확인해 둔다.

이하 본고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자대우표현으로 두 언어의 성서 모두 이것은 다시 존대(정중체)와 비존대(보통체)로 구분되는 데까지는 일치한다. 그러나 성서언어에 나타난 두 언어의 청자대우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하나는 한국어 존대의 ‘오(소)’등 예사높임에 해당하는 대우표현이 일본어에서 비존대형식인 「だ」체로 실현되는 것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어 성서에는 동일한 인물이 격식 있게 진술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비존대체(「だ」체)가 등장하면서 존대와 비존대가 혼재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어 한국어와 차별되었다. 이에 대한 본고의 분석은 이러했다. 즉 전자의 경우는 비존대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통념적 범위에서 두 문화권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고, 후자는 당연히 존대표현이 나타날 상황이라도 일본어는 청자로부터 응답을 기다리는 담화적



장면이 아니라 단순히 청자에 대한 독백적 장면에서는 비존대가 사용된다고 보았다.

둘째, 주체존경과 객체존경으로 구분되는 화제인물 대우표현이다. 주체존경을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로 한국어는 선어말어미 ‘-시-’ 하나가 있으나, 일본어는 대표형태 「られる」 외에 「お~になる」 와 동사의 명사형 등 복수의 형태가 존재한다. 한편 한국어에는 ‘께서’라는 조사가 선어말어미 ‘-시-’와 수의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일본어에 없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본어에서 「られる」 형 존경형태와 『お~になる』 형 존경형태의 상호교체의 문제는 일부 동사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일부 동사란 「叱る」「預ける」「赦す」처럼 「られる」가 개입하면 의미적으로 수동이 먼저 연상될 수 있는 동사들로 이들 동사는 일본어 성서 3개의 역본 모두에서 「られる」형 존경표현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본어 주체존경표현의 또 하나 특징으로는 동사의 명사형에 접두사를 수반하는 형태의 존재이다. 이것은 동사형을 명사형으로 변형시킴으로서 표현의 품위를 높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구어에서 객체존경표현은 두 언어 모두 주체존경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었다. 각각의 언어에서 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어 구어에는 객체존경을 나타내는 문법적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일본어의 「お~する」라는 객체존경형태 역시 출현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법적 형태의 존재에 근거해 일본어가 한국어에 비해 구어에서 객체존경표현이 발달한 것은 사실이다. 한편 이것에서도 한국어는 주체존경과 마찬가지로 객체에 붙어 존경을 의미를 나타내는 ‘께’라는 조사가 ‘여쭙다’ ‘말씀드리다’ 등의 동사와 수의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 【參考文獻】

- 표준새번역(1993)  
공동번역성서(1997)  
새번역(2001)  
口語訳(1955)  
新共同訳(1987)  
フランシスコ会訳2013)
- 菊地康人(1996)、『敬語再入門』、丸善  
鈴木範久(2006)、『聖書の日本語』、岩波、p145  
田川建三(1997)、『書物としての新約聖書』、勁草書房. pp.626~634  
牧野成一(1996)、『ウチとソトの言語文化学』、アルク、pp105~107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 출판, p1015  
安増煥(2004)、 「文化的差異に基づく日韓語の相対的な言語類型」、 『訪日学術研  
究者論文集』 第十一卷. p429  
안증환(2012), ‘통시적 관점에서의 한일 대우표현 비교’, “일 본문화학보”52  
안증환(2013), ‘한일 문어체 성서의 대우표현 비교’, “일본문화학보”56  
한길(2002),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역락  
邢鎮義(2011)、 「日本における敬語の変遷と聖書翻訳」、 『日本語文学』 50輯  
韓国日本語文学会. p158

## 要 旨

本稿は韓国と日本の両国における口語体聖書の待遇表現を比較することに目的があって、文語体聖書を比較した筆者(2013)に続く研究に当たるといえよう。両国共に複数の口語体聖書を持っており、本稿では韓国語の“새번역”と日本語の『新共同訳』を主なテキストとして比べている。勿論必要に応じては他の訳本も引用している。本稿の研究範囲は紙面の制約のため、聞き手待遇表現と話題人物待遇表現に留まっていることを断っておく。

以下は本稿の研究内容である。聞き手待遇表現において両言語は大きくみれば丁寧体と普通体に分けられる共通点を持っている。ただ韓国語の丁寧体は丁寧度によってもっと高い表現とやや高い表現とに再分類される特徴を持っている。この他、両言語の聖書比較では二つの相違点が見られた。一つは韓国語聖書の丁寧体の中の多くが日本語聖書で普通体を実現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もう一つは日本語聖書のことで、丁寧体陳述の途中、突然普通体が登場することが頻繁に見られるのである。本稿ではこのことについての分析を試みている。

次は主体尊敬と客体尊敬という話題人物待遇表現である。主体尊敬にかかわる文法形態として韓国語は‘-시-’という先語末語尾のみであるが、日本語は代表形「られる」の他に「お~になる」と接頭辞「お」を伴う動詞の連用形など複数のものを持っている。なお、本稿では三種類の日本語口語体聖書の比較を通じて、「られる」形と「お~になる」形の相互交替がどれぐらい可能であるかをも調べてみた。最後に、客体尊敬表現では、先ず両言語共に主体尊敬表現ほど安定していないことを確認した。というのは、現代の韓国語では客体尊敬を示す文法形態がなく、日本語の「お~する」は条件充足の下でも現れないことが多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一方、話題人物待遇表現において見られる両語の相違点の一つは、日本語と違って絶対的ではないが、韓国語には‘께서’や‘께’のように、助詞そのものに尊敬の意味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

キーワード： 口語体聖書の待遇表現、聞き手待遇表現、話題人物待遇表現、主体尊敬、客体尊敬

투 고 : 2014. 8. 31  
1차 심사 : 2014. 9. 13  
2차 심사 : 2014. 10. 4